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김세중 실장(동향분석실, 3775-9059)
작성자 김세중 연구위원(3775-9059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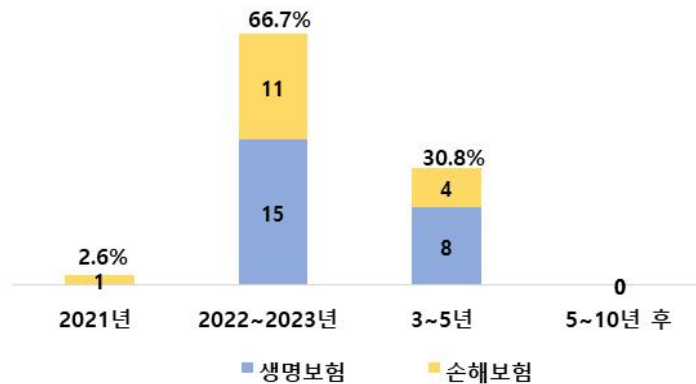
보도 2021. 10. 7(목) 조간부터
배포 2021. 10. 6(수)
매수 총 5매

보험연구원, 『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 CEO Report 발간

“보험회사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,
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”

-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(동향분석실장)과 김유미 연구원은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미래 전략, 정책적 요구 등을 조사한 『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 보고서를 발표함
 - 이번 설문은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으며, 총 42명의 CEO 중 39명(생명보험 23명, 손해보험 16명)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93%임
- (코로나19 및 경제 환경)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, 점진적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예상함
 - 코로나19 종식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1~2년 안에 단기 종식을 예측하고 있으며,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 생명보험 CEO를 중심으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
 - 시중금리에 대해서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소폭의 상승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수익성은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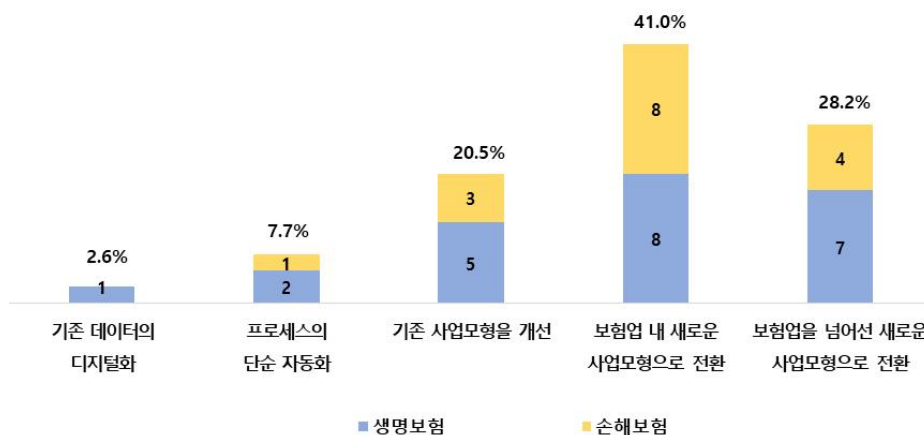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정상화 시점



주: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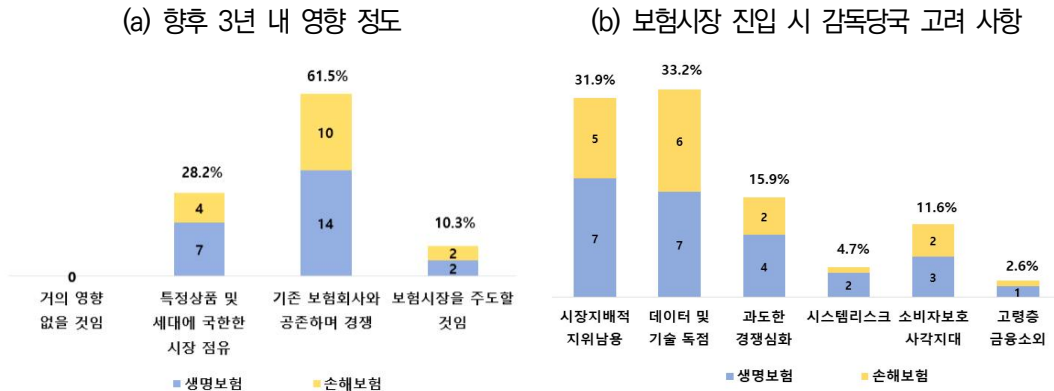
- **(디지털화와 경쟁 환경)**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향후 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함
 - 향후 3년 내 빅테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, 대부분 보험시장의 일부 영역 진출에 그치거나 기존 보험회사들과 공존하는 수준으로 전망함
 - 디지털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입 시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과도한 경쟁,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았음

<그림 2> 디지털화 목표 수준



주: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〈그림 3〉 빅테크의 영향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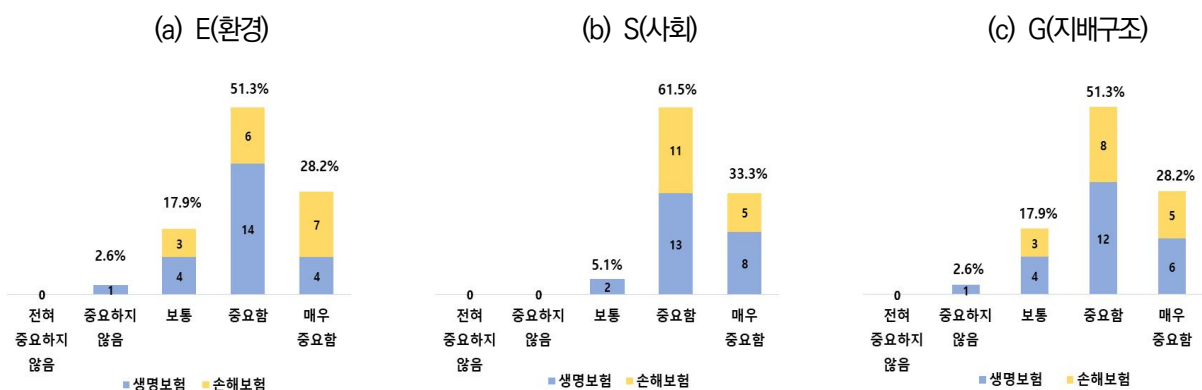


주: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○ (ESG와 MZ세대의 부상) ESG 중 사회적 책임(S)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,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은 대체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, MZ세대의 부상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ESG 각 항목 중 환경문제(E)에 대한 관심은 손해보험 CEO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현재까지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고, MZ세대의 부상이 향후 2~3년 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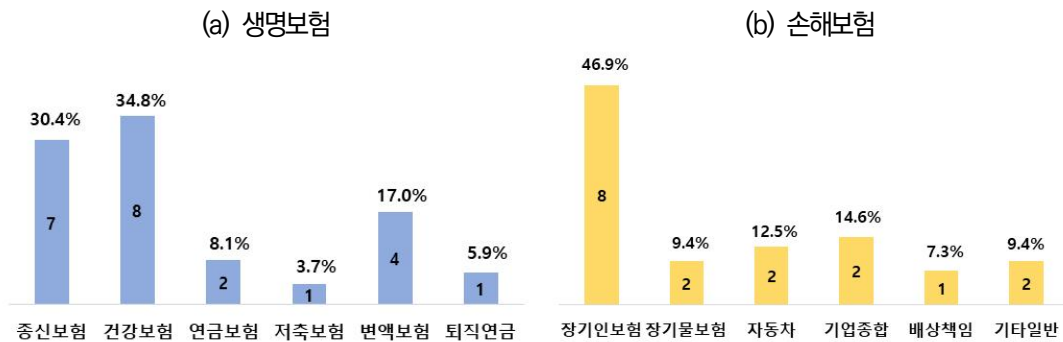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4〉 ESG 경영 중요도



주: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- (영업전략과 제도변화) 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보험을 꼽고 있으며,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,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룸
-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건강보험, 종신보험, 변액보험, 연금보험 순으로 나타났으며,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인보험이 가장 많았고 기업종합보험, 자동차보험이 일부 선정되었음

〈그림 5〉 향후 2~3년간 주력 상품전략(순위형)



주: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- 신사업영역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,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루었으며,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, 종합금융서비스, 마이데이터 사업이 고루 선택됨

〈그림 6〉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신사업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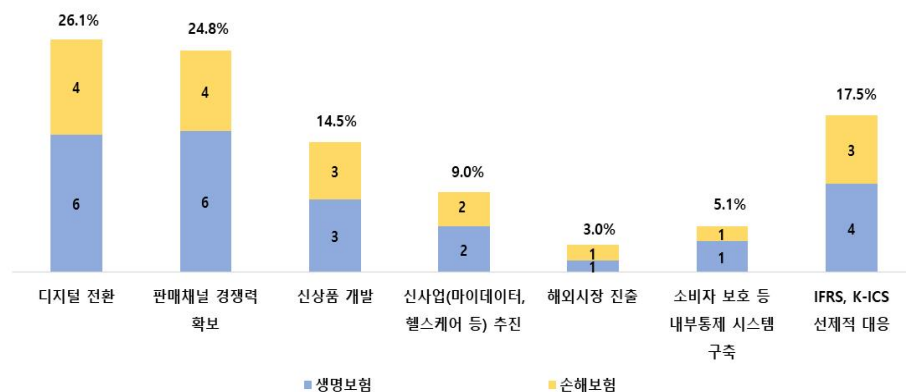


주: 1)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2) 무응답은 생명보험 2명, 손해보험 1명임

- (영업전략과 제도변화) 2021~2022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환,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, IFRS17 및 K-ICS 선제적 대응, 신상품 개발 등이며, IFRS17과 K-ICS에 대해서는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함
- 2023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제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-ICS에 대한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는 평가가 77.0%로 지배적임

〈그림 7〉 2021~2022년 중 우선순위 분야



주: 막대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 수임

-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·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
- 보험회사들은 디지털화를 무기로 신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사업영역 안에서는 건강보장 확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, 사업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보험산업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한편 보험회사는 장기생존 전략과 함께 다양한 현안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장기 성장기반 조성 and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

첨부: CEO Report 『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